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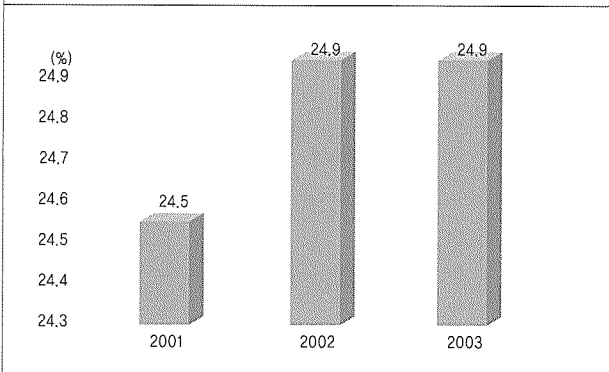
디지털전자기기 수입의 변모

전자산업연구소

총수입에서 디지털전자수입 비중

지난 3년간 전자제품과 전자부품을 포함한 디지털전자기기의 수입이 우리나라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대에서 거의 변하지 않고 있으며 총수입이 증가하는 비율과 디지털전자기기의 증가율이 유사하게 움직이면서 비중은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도 1〉 총수입 대비 전자수입 비중 추이



디지털전자기기 수입은 비중은 2001년에 24.5%에서 2002년과 2003년에 공히 24.9%를 기록하였으며, 한편, 디지털전자기기의 수출 비중이 2001년 34.4%에서 2002년 37.7%, 2003년 38.5%를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전자기기의 수입이 총수입에서 점하는 비중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총수입의 증가세와 더불어 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전자기기의 수입은 2001년에 346억불에서 2002년 378억불로, 2003년 444억불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한편, 디지털전자기기의 수출도 2001년에 517억불에서 2002년 611억불로, 2003년 746억불로 늘어나고 있다.

〈도 2〉 전자기기 수입 추이



디지털 전자기기의 수입과 수출은 규모에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나 총수입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수출은 민관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수입은 가능한 한 절약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주요 수입국별 실적 추이

(단위: 백만불, %)

	2001			2002			2003		
	국가순	금액	증가율	국가순	금액	증가율	국가순	금액	증가율
전자산업	34,630		-19.7	전자산업	37,815	9.2	전자산업	44,447	17.5
일본	8,810		-19.2	일본	9,959	13.0	일본	12,021	20.7
미국	8,339		-34.9	미국	8,252	-1.0	미국	8,566	3.8
중국	3,370		10.2	중국	4,462	32.4	중국	6,314	41.5
대만	3,069		-8.8	대만	3,338	8.8	대만	4,000	19.8
싱가포르	2,134		-12.8	싱가포르	2,396	12.3	싱가포르	3,077	28.4

2001년의 경우, 일본에서 88억1천만불, 미국에서 83억3천만불어치를 수입하였으며, 이 수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이라 할 수 있고 3위인 중국에서 33억7천만불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대일, 대미 전자기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대만에서 30억6천만불, 싱가포르에서 21억3천만불어치를 각각 수입하였다.

〈표 2〉 대일 5대 수입 품목

(단위 : 백만불,%)

2001			2002			2003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전자산업	8,810	-19.2	전자산업	9,959	13.0	전자산업	12,021	20.7
메모리반도체	1,281	-12.3	기타집적 회로반도체	2,618	115.0	기타집적 회로반도체	3,331	27.2
기타집적 회로반도체	1,218 -0.4	-0.4	기타개별소자 반도체	525	21.2	경보신호기부품	724	158.3
기타무선통신 기기부품	494	-11.6	기타무선통신 기기부품	448	-9.3	기타개별소자 반도체	677	29.1
기타개별소자 반도체	433	-29.3	인쇄회로	329	22.2	기타무선통신 기기부품	647	44.4
기타축전지	309	-29.0	메모리반도체	325	-74.6	메모리반도체	469	44.3

2002년의 경우, 일본에서 99억5천만불로 전년보다 13.0% 증가하였으나, 미국에서는 82억5천만불로 1.0% 감소하였고, 중국에서는 44억6천만불로 32.4% 급증하였으며, 10위권 내에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중국의 신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대만이 33억3천만불, 싱가포르가 23억9천만불을 나타내었고, 2003년의 경우, 일본에서 120억2천만불로 전년보다 20.7%, 미국에서 85억6천만불로 3.8% 각각 증가하였으며 중국에서는 63억1천만불로 무려 41.5% 급증하였고, 10위권 내에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의 신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만이 40억불, 싱가포르가 30억7천만불을 각각 기록하였다.

수입의 26.3%를 점하였으며 국내의 디지털TV, 휴대폰 등 첨단 전자기기들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규모가 확대된 것이며 다음은 기타개별소자반도체가 5억2천만불,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이 4억4천만불, 인쇄회로가 3억2천만불이고, 메모리반도체가 3억2천만불(-74.6%)로 전년도의 2위에서 5위로 내려갔다.

2003년에는, 기타집적회로반도체가 33억3천만불(27.2%)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보신호기부품이 7억2천만불(158.3%)로 2위로 도약되었는데, 국내에서 액정신호시스템의 대거 도입에 따라 신호기부품의 해외 매입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기타개별소자반도체가 6억7천만불,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이 6억4천만불, 메모리반도체가 4억6천만불을 각각 기록하였다.

▶ 대일, 반도체가 1순위

일본으로부터 전자기기 수입 아이টে를 분석해보면, 반도체류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생산의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류 수입이 많은 것은 비메모리반도체이거나 국내에 있는 공장 중에서 일본계 또는 일본과의 고정선을 맺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고 2001년에는 메모리반도체가 12억8천만불(전년대비 -12.3%)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이 금액은 대일 전자수입액의 14.5%를 점하는 것이며 다음이 비메모리반도체인 기타집적회로반도체가 12억1천만불에 달하였고 고급 첨단기술제품의 일본 의존도를 잘 보여주는 지표로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이 4억9천만불, 기타개별소자반도체가 4억3천만불, 기타축전지가 3억불의 순으로 5위까지 리스트되어 있다.

2002년에는, 기타집적회로반도체가 메모리반도체를 제치고 26억1천만불(115.0%)로 1위로 올라섰고, 대일 전자

일본산 전자부품이 장기간 선호되고 있는 것은 일본산의 품질이나 성능이 매우 우수하고 세계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며 예를 들어, 일본에서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원인으로 국산 휴대폰의 생산과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핵심부품소재를 고성능 일본산이 선호되고 있는 현실을 들 수 있다.

▶ 대미, 집적회로반도체가 1순위

미국으로부터의 전자기기 수입을 살펴보면, 비메모리반도체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세계적인 비메모리반도체 메이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메모리반도체의 수입은 최근 거의 사라지고 있다.

〈표 2〉 대일 5대 수입 품목

(단위 : 백만불,%)

2001			2002			2003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전자산업	8,339	-34.9	전자산업	8,252	-1.0	전자산업	8,566	6.6
기타집적회로반도체	2,489	-46.7	기타집적회로반도체	4,325	73.7	기타집적회로반도체	4,903	13.4
메모리반도체	1,551	-28.2	기타유선전송장치	384	-24.7	기타유선전송장치	319	-16.9
기타유선전송장치	509	-37.8	개인용컴퓨터	341	-21.2	개인용컴퓨터	223	-34.5
개인용컴퓨터	433	-34.2	소프트웨어	283	-1.6	기타계측기	206	-5.4
소프트웨어	288	-11.0	기타계측기	218	35.2	소프트웨어	196	-30.7

2001년의 경우, 기타집적회로반도체가 24억8천만불(-46.7%)로 1위를 차지했고, 메모리반도체가 15억5천만불, 기타유선전송장치가 5억불, 개인용컴퓨터가 4억3천만불, 소프트웨어가 2억8천만불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미 5위내의 품목은 주로 비메모리반도체, 기타유선전송장치, 개인용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계측기 등을 들 수 있다.

2002년의 경우, 기타집적회로반도체가 43억2천만불(73.7%)를 1위에, 기타유선전송장치가 3억8천만불, 개인용컴퓨터가 3억4천만불, 소프트웨어가 2억8천만불, 기타계측기가 2억1천만불 순으로 랭크되었으며 메모리반도체는 5위권에서 탈락되었고, 디지털 신제품의 품질, 또는 성능을 테스트하는 기타계측기가 올라섰다.

2003년의 경우, 기타집적회로반도체가 49억불(13.4%)로 1위를 지속하고 있지만, 2위부터 5위까지는 전년보다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기타유선전송장치가 3억1천만불(-16.9%), 개인용컴퓨터가 2억2천만불(-34.5%), 기타계측기

가 2억불(-5.4%), 소프트웨어가 1억9천만불(-30.7%)를 각각 기록하였다.

▶ **대중, 경보신호기부품이 1순위**

중국으로부터의 전자기기 수입의 아이템은 일본이나 미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중 수입은 주로 부품이 눈에 띄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중국산은 디지털 첨단기기도 물론 있지만, 국내 업체가 진출한 현지공장에서는 로컬공장, 또는 다국적 공장에서 생산되는 비교적 품질이 적절하면서도 저렴한 전자제품들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1년에는 기타컴퓨터부품이 3억7천만불(22.7%)로 1위를 점하였으며,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이 2억1천만불, 메모리반도체가 2억불, 음향기기부품이 1억8천만불, 액정디바이스가 1억2천만불을 각각 기록하였다.

〈표 3〉 대일 5대 수입 품목

(단위 : 백만불,%)

2001			2002			2003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전자산업	3,741	-0.9	전자산업	7,523	101.1	전자산업	11,956	58.9
천연색음극선관	532	-37.7	휴대용전화기	1,303	101.1	기타컴퓨터부품	1,981	125.2
기타컴퓨터부품	479	41.6	기타컴퓨터부품	880	1215.6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1,678	104.1
음향기기부품	414	43.8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822	83.6	데이터디스플레이장치	1,344	86.7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265	202.9	천연색음극선관	745	209.4	휴대용전화기	1,246	-4.4
기타전자관부품	250	15.7	데이터디스플레이장치	720	40.0	메모리반도체	922	268.7

2002년에도 기타컴퓨터부품이 3억8천만불(0.8%)로 1위를 유지하였으며, 기타집적회로반도체가 3억1천만불로 2위로 도약하였고, 경보신호기부품이 2억8천만불,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이 1억9천만불, 액정디바이스가 1억7천만불로 5위까지 살펴보았다.

2003년에는 순위가 바뀌어 경보신호기부품이 5억1천만불(76.9%)로 1위에 랭크되었고, 기타컴퓨터부품이 5억1천만불로 2위로, 기타집적회로반도체가 5억불로 3위로 각각 물러났으며, 데이터디스플레이장치가 3억8천만불로 4위에, 폐전전지가 3억2천만불로 5위에 각각 나타났다.

▶ 디지털가전의 수입의존도 미미

전자기기에서 가전, 정보통신용, 전자부품 등으로 크게 분류할 때, 먼저 가전의 경우 수입의존도는 매우 미미한 편이며 내수에 대한 수입을 수입의존도로 정의할 때, 5%가 채 안되는 품목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칼라TV는 약 5%이며, 냉장고는 2%, 에어컨은 1%, 세탁기는 3% 내외이다.

가전기기에서 완제품과 부품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2001년에는 완제품이 17억불(15.4%), 부품이 8억불(6.2%)로 합계 25억불에 달하였고, 2002년에는 완제품이 22억불(28.9%), 부품이 8억불(0.8%)로 합계 30억불이었으며, 2003년에는 완제품이 24억9천만불(13.4%), 부품이 9억9천만불(23.9%)로 합계가 34억9천만불을 기록하였으며 1억불 이상 규모를 가진 아이টে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완제품에서는 캠코더가 2003년에 4억불(56.7%)로 가장 많은 수입을 나타내었으며 캠코더는 2001년에 1억불(29.1%), 2002년에 2억6천만불(137.7%)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매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전구로 2001년에 2억6천만불(24.8%), 2002년에 2억8천만불(8.1%), 2003년에 4억불(40.5%)로 전구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스피커는 1억6천만불, 2억1천만불, 2억불을, 카스테레오는 1억불, 1억2천만불, 1억5천만불로, 기타컴포넌트는 공히 1억7천만불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품에서는 음향기기부품이 2001년에 5억4천만불, 2002년에 4억5천만불, 2003년에 4억7천만불로 다소 기복이 있지만 규모는 큰 편이라 할 수 있고 국내의 대다수 음향기기 메이커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칼라TV부품은 2001년에 9천만불에서 2002년에 1억3천만불, 2003년에 2억8천만불로 크게 증가하고 부품의 수입 규모가 이처럼 큰 폭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해외 현지 공장으로부터의 반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정보통신용 수입의존도 高

정보통신용에 있어서는 완제품의 수입의존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나, 완제품에 소요되는 각종 부품류의 수입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휴대폰을 비롯한 디지털 첨단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국내에서도 생산하고 있지만, 일부 부품소재는 고성능, 고품질의 외산을 선호하고 있으며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의 수입의존도는 2001년에 80%에 이르렀으나 2003년에 70%로 다소 낮아졌고, 기타컴퓨터부품의 수입의존도는 같은 기간 비슷한 추이를 보였으며, 경보신호기부품의 수입의존도는 90%대에서 80%로 저하되었다.

정보통신용 전자기기를 완제품과 부품으로 구분할 때, 2001년에는 완제품이 80억1천만불(23.0%), 부품이 45억1천만불(6.2%)로 합계 125억2천만불, 2002년에는 완제품이 83억9천만불(28.9%), 부품이 44억불(0.8%)로 합계 128억불로 정체된 상태였으나, 2003년에는 완제품이 87억3천만불(13.4%), 부품이 56억8천만불(23.9%)로 합계가 144억1천만불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 기준 5억불 이상 규모를 가진 아이টে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완제품에서는 기타유선전송장치가 2003년에 8억2천만불(-5.1%)로 가장 많은 수입을 보였고 기타유선전송장치는 2001년에 9억2천만불(-35.4%), 2002년에 8억6천만불(-6.1%)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데이터디스플레이장치는 2003년에 7억2천만불(-3.1%), 2002년에 7억4천만불(82.9%), 2001년에 4억불(25.0%)을 나타내었고, 개인용컴퓨터가 같은 기간 동안 6억9천만불(3.4%), 6억4천만불(-6.2%), 7억1천만불(-29.0%)이었으며, 그 다음은 기타계측기가 6억6천만불(7.7%), 6억1천만불(28.8%), 4억8천만불(-15.0%)이며, 부품에서는 10억불 이상을 기준으로, 기타컴퓨터부품이 2003년에 14억8천만불(2.1%)로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고, 경보신호기부품이

14억4천만불(114.3%),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이 13억불(17.0%)를 보였다.

④ 전자부품 수출입 규모 유사

전자부품의 수입은 수출과 규모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산 전자부품은 비교적 중국산보다 우수한 편이면서 일본산보다 저렴하다고 세계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어, 일반부품시장에서 선호되고 있다.

반도체의 수입의존도는 2003년에 60% 내외로 2001년의 80%에서 크게 떨어졌으며, 축전지의 수입의존도는 지난 3년간 약 50%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쇄회로는 20% 정도, 축전지는 30%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자부품의 수입은 2001년에 195억불로 전년보다 22.1% 감소하였으나, 2002년에 219억불로 12.2%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 265억불로 20.7%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가 2003년에 118억불(18.9%)로 전자부품 수입의 80%를 점하고 있을 정도로 지배적이고 2003년 기준 3억불 이상 규모를 가진 아이템에서는 인쇄회로가 5억1천만불(67.8%)이며, 축전지가 4

억5천만불(20.4%), 액정디바이스가 3억4천만불(68.2%), 폐건전지가 3억불(12.4%)를 각각 기록하였다.

④ 대외기술료 지출 증가세

전자 IT강국이라는 내부적 자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원천핵심기술의 개발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나라보다 앞서 구축된 IT인프라와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로열티를 지불하는 국가, 기업에서 원천기술을 수출하는 국가, 기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디지털시대에 설립된 국내 일부 벤처기업들은 이동통신, 게임, 응용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 세계에 수출하면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많은 분야에서 아직까지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함으로써 기술에 있어 역조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경우로 국내휴대폰은 세계시장의 4분의 1을 점하고 있지만,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단말기 판매의 약 5%를 로열티로 미국 퀄컴에 지불하고 있으며 2002년의 경우 해외 지불기술료는 27억불로 퀄컴 등 해외의 상위 10개 업체로 집중적으로 지불된 것으로 추정된다. ④

